

中 시진핑 '日 과거사 역주행' 강력 경고

7·7사변 77주년 기념행사서 "역사 부정·왜곡 허용하지 않을 것" 강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의 전면적인 항일전쟁 돌입의 계기가 된 '7·7사변(노구교(盧溝橋) 사건) 77주년을 맞아 7일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에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베이징시 외곽의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유감스럽지만 중국인민항일전쟁과 세계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한지 7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전쟁 중 희생당한 수천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무시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몇몇 사람들은) 침략역사를

재차 부인하고 심지어 미화하며 국제적 상호 신뢰를 파괴하면서 지역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그들은 중국인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특히 "누구도 역사와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며 "누구든 침략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심지어 미화하려 하다면 중국인민과 각국 인민은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록 이날 강연에서 일본정부를 구체적인 사실과 전쟁 중 희생당한 수천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무시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몇몇 사람들은) 침략역사를

이날 기념식에는 시 주석 이외에도 위정성(俞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고, 기념식 전체를 중국중앙(CC)TV 등 관영매체들이 생중계했다.

'7·7사변'은 중국 노구교 인근에 주둔한 일본군이 1937년 7월7일 밤 "중국이 사격을 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노구교 지역 점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일전쟁을 촉발한 것을 뜻한다.

중국은 이 사건을 중국 인민이 전면적 항전에 돌입한 시점으로 본다.

그러나 '7·7사변' 기념식에 국가주석 등 당정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과거사와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일본을 정면으로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伊 알프스 마을 경매 나왔다

'공동화 심화' 칼사지오
최초 입찰가 3억4천만원
'전통방식 복구' 조건 달아

이탈리아에 속한 그림같은 알프스 마을 칼사지오가 이베이 경매에 부처졌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마을이 공동화되자 노년층 주민들이 관광투자 유치를 통해 활로를 찾고자 마을을 통째로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방식으로 마을을 복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초 입찰가격은 24만5천 유로(약 3억4천만원)였다. 그러나 나무와 돌로 만든 가옥 14채와 부속 건물 50채가 대부분 허물어진 채 방치된 상태여서 이를 복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상황이다.

이 마을은 이탈리아 최초의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사냥터였던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마을이 공동화되자 노년층 주민들이 관광투자 유치를 통해 활로를 찾고자 마을을 통째로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방식으로 마을을 복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집단 자위권' 일본내 저항 가속

야권 갈등에 아베 저지 불투명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 이후 일본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에 대한 찬반을 놓고 '사분오열'하는 상황여서 아베 정권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학자들 "입헌독재 부활 우려" = 지난 6일 오사카(大阪) 시내에서는 시민 약 50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오사카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평화주의를 끝까지 지키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후에는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을 든 채 오사카 시내를 약 1km 행진했다.

집회에 참석한 사민당 당수 출신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의원은 "아베 정권은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시다 노리코(石田法子) 오사카 변호사회 회장은 "정부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자"고 말했다.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이 구성된 '입헌민주주의의 보임'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을 변경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은 "사실상 헌법 개정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항의했다.

◇야권에선 공산·사민당간 선명한 분

데=정치권에서도 최근 진보 야당인 공산당(중·참의원 19석)과 사민당(5석)이 내년 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국 유세 등을 통해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표로 연결하는데 애쓰고 있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4일과 5일 각각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즈카(横須賀)시와 시즈오카(静岡)현 시즈오카시에서 연설회를 했고, 사민당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당수도 5일 다카마쓰(高松)시에서 가두연설을 했다.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집단 자위권을 선거 쟁점화함으로써 아베 정권에 대항한다는 목표 아래 집단 자위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115석), 일본유신회(신당 결성 예정인 이시하라 계열을 제외하고 37석), 통합당(14석) 등 주요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 이후 내분을 겪거나 예정된 합당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외 공세의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가이에다 만리(海江田万里) 대표가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고 있지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 등 당내 보수파 중 찬성하는 의원들이 존재해 당론 통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자신신문)이 보도했다.

또 합당을 추진 중인 일본유신회와 통합당의 경우 양당 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와 에다 겐지(江田憲司) 사이에 큰 견해차가 노출되고 있다.



日 '마르코폴로 협약' 지켜라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일본내 반대 의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에는 대만 국민들이 타이베이에 있는 일본 대사관앞에서 아시아내 평화유지 정책을 담은 '마르코폴로 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군 소장 8명 부패조사...군 조사 확대

최소 8명의 중국군 소장(少將)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낙마 이후 군(軍)내 부패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7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의 황귀주(黃國柱) 전 소장(소장)이 쉬 전 부주석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유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또 쉬 전 부주석의 비서였던 장공셴(張貢獻) 지난(濟南)군구 정 정치부 부주임도 최근 면직되는 등 소장 8명이 부패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중국군의 군수·보급 담당 부서인 총후군부의 부참모장이었던 푸린궈(符林國) 소장은 집에 황금 25kg과 2000만위안(약 32억 6천만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군사기밀유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푸 소장은 2012년 퇴임한 라오시팅

(廖錫龍) 총후군부 부장 겸 중앙군사위원의 비서를 지냈다는 점에서 라오 전 부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라오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이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상태다.

중국 당국이 최종적으로 겨냥하는 인사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급인 귀보송(郭伯雄)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라는 설도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 시절 군의 최고 실세였던 귀 부주석은 이미 부패로 낙마한 쉬 전 부주석과 함께 군사학자 매각 등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증화된 매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당 부서인 총후군부의 부참모장이었던 푸린궈(符林國) 소장은 집에 황금 25kg과 2000만위안(약 32억 6천만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군사기밀유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푸 소장은 2012년 퇴임한 라오시팅

보톡스, 대상포진 치료후 신경통에 효과

보톡스가 대상포진 치료 후에도 계속되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메디컬센터 신경과 연구팀이 60명의 대상포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보톡스,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위

약을 투여했다.

그 결과 며칠 후 보톡스 그룹이 리도카인과 대조군에 비해 통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은 없었다.

보톡스는 통증의 신경전달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차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개의 경우 1년 안에 완전 회복되지만 몇 년 또는 영구히 지속되는 환자도 있다.

여자의 밸런스 루틴으로 잡으세요!

비싼 일상속 간편한 밸런스
사람 따뜻하게 하고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바다위 섬에서 자란 신안꾸지뽕 차

100티백 섬 꾸지뽕차 출시!!

- 신안군 행정 섬에서 해풍을 받고 자란 신안꾸지뽕 100%
- 몸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루틴
- 신안만의 특수공법으로 꾸지뽕잎을 발효시켜 뒤어서 만든 꾸지뽕차

神木에 氣를 담은

꾸지뽕

유기농 재배작물!
최고의 경제수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꾸지뽕나무

꾸지뽕 관련 제품 대리점 하실 분을 찾습니다.

재배방법 용이, 귀농 귀촌 농가 추천 작목, 재배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신안꾸지뽕농업법인(주) | 1899-3688 | www.bbong88.co.kr

직장인들의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 거기에 기름진 식단과 운동부족까지 이제 신안꾸지뽕차로 몸의 균형을 잡으세요

꾸지뽕 성분중 가바, 루틴 성분이
녹차의 46배, 68배

- 가바(GABA) 성분이란?
포유류의 뇌속에 존재하는 특이한 아미노산으로 인체에 가려먹, 사고력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골라스테를 제거와 당노병 개선, 고지혈증,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 루틴(Rutin) 성분이란?
임종의 폴리노이드 유도체로서 모세혈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동맥경화, 노출혈 같은 순환기 계통을 강화시키고 노화방지, 당뇨, 비만, 이드피 피부염, 염종치리(세안성질환) 등 신진대사를 조절해주어 우리 몸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남신안자연연구소
재용연구

(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협업

신안군수 생산보증